

# 사회학의 '베버 르네상스' 오려는가

## 마르크스 인기 시들해지면서 막스 베버 리바이벌붐

박성환

경기대, 한양대 강사

어떤 학문이 그 분야의 고전적인 저술이나 고전가를 돌이켜본다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관심의 차원을 넘어서는 작업이다. 그것은 개별 학문에 알게 모르게 바탕이 되어 있는 가정이나 전제를 재성찰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지식은 이미 극복된 그 무엇이기에 때문에 이를 다시 회상한다는 것은 상아탑 속에서의 비현실적인 도락에 지나지 않거나,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새로운 지식을 섭렵하기도 바쁜 터에 진부하고도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치부되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학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탐구의 결실을 단순히 축적해감으로써 점차 진보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패러다임 속에서 이루어지게 마련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개별 과학은 자신들의 인식론적인 기반과 역사적 위치에 대해 새삼스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근래에 사회학계에서 '베버-르네상스'라고 불릴 만큼 막스 베버(Max Weber : 1864-1920)의 사회학 세계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단순한 회고적 취미에서 연유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동안 사회학이 상정해온 세계상과 인간상, 그리고 이론 및 실천의 관계에 대한 반성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 기존 사회학에 대한 반성, '베버 르네상스'

주지하다시피 사회학은 사회적 현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사회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론을 정립해서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인간의 사회적 생활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탄생했다. 이것은 사상사적으로 볼 때 18세기 서유럽에서 시작된 계몽의 정신을 이어받은 결과였다. 계몽은 이성에 대한 믿음과 과학의 전파를 통해 인간을 과거의 신화나 종교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선입견이나 독단 및 미신으로부터 구제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충만해 있었다. 즉, 과거의 종교가 인간에게 내세워진 구원의 약속을 했었다면, 근대의 계몽은 인류에게 현세적인 구원의 복음을 제시했었다. 이러한 세속적인 구제계획은 크게 보아 자유주의, 사회주의 및 민족주의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계몽과 함께 인간의 공동생활은 예측불능의 불확실성 속에 빠져들었다. 이는 특히나 인간이 기존의 전통적인 질서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이해와 이념을 좇아 자유로이 사

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대정신은 이러한 미지의 사회적 힘과 질서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사회와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올바른 사회를 창출해낼 수 있는 과학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가 다른 사회주의적 이념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것은 자유와 평등 및 인간해방이라고 하는 철학적, 규범적 이상이 바로 과학적인 역사법칙을 토대로 실현될 수 있음을 마르크스가 설득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사회' 과학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되면서도 정치적인 변화와 더불어 사회주의 진영의 공식적인 국가적 교리로서 위치를 굳혀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학 사실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사회조사를 통해 완성된 사회이론을 만들어서, 마치 자연과학이 법칙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연을 정복해왔듯이, 이제는 사회를 기술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실증주의적 과학이 등장했다. 이것은 서구 및 자유 세계의 사회과학 일반의 모태가 되었다.

실증주의적 사회학과 교조적 마르크시즘이라는 근대적 세계상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사 이래의 그 어느 이념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전세계에 보급되어왔는데, 그 세력 판도를 살펴보면 지리적인 경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블록화된 냉전체제와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이는 두 가지 '사회' 과학의 세계사적인 특세가 단순한 학문사적 관심이나 과학론적 논의의 대상을 넘어서는 일임을 말해주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영향과 문화적 선전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두 세력 사이에 벌어진 헤게모니 쟁탈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3세계는 선택을 강요당했으며, 어느 한쪽에 편입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남북한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한국 사회학계의 '주류'와 '비주류'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경쟁도 거칠게 말하자면 그러한 세력 다툼과 선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러한 두 가지 '사회' 과학이 제시하는 것과는 다른 사회질서의 가능성이나 사회적 현실에 관한 독자적인 학문적 전략의 기회는 상실되고 말았던 것이다. 여기에는 독일의 고유한 정신과학 및 문화과학적 전통을 토대로 성장한 막스 베버의 사회학도 예외일

베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용납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았다. 그는 근대적인 서구문화의 유산과 토대 위에서 비서구적·비근대적 문화를 이론적·실천적으로 극복하여 서구문화의 장래를 보다 확고한 기반 위에 올려놓으려고 했다.



막스 베버.

수 없었다. 나아가서 그의 사회학은 심지어 실증주의적인 색채로 왜곡되기까지 했다.

그런데 마르크시즘과 실증주의적 사회학이 인류 구원의 약속과 함께 전세계에 자신의 이념을 경쟁적으로 전파하였지만, 두 사회 이론은 하나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즉, 그들에게 있어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통일적인 사물로서,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규칙성을 지닌 법칙적 연관이었다. 이러한 법칙은 마르크시즘에 있어서 인류 사회의 역사를 관통해온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계급 투쟁의 역학이 바로 그것이었다. 실증주의적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속성을 일정한 변수로 환원하고 이러한 변수 사이의 객관적인 법칙성, 즉 사회적 사실의 확인이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었다.

사실인즉 어느 과학도 자신의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사회적 현실에 담겨진 실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모두 복사해낼 수는 없다. 우리는 언제나 다종 다양한 사회적 현실 중에서 저마다의 관점에 따라 중요하거나 결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또 그렇기 때문에 알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해낼 수밖에 없다. 마르크시즘과 실증주의적 사회학은 사회적 현실 중에서 類의인 것, 즉 반복해서 나타나거나 공통적인 형태를 지닌 요소와 법칙적인 연관이 가장 본질적인 단면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는 지극히 정당한 인

식 프로그램이었다. 문제는 두 '사회' 과학이 실제로는 것처럼 사회적 현실의 일정한, 특히 양적인 측면만을 그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으로 선택하면서도, 이러한 스스로의 관점이 지닐 수밖에 없는 일면성과 제한성을 제대로 자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러한 법칙론적 사회지식이 마치 객관적이고도 전체적인 사회적 및 역사적 현실 자체인양 내세워왔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과학에 인간존재의 운명을 맡겨온 근대사회에 있어서 그같은 사회지식이 일상의 공적, 사적 분야에 미친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 결과 우리가 직면하게 된 사실은 사회 자체가 독자적인 법칙성 속에서 행위하기 시작하고, 인간과 그의 모든 행위는 사회적 상황의 산물로서만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를 흐르고 있다고 생각되는 법칙에 어긋난 행위는 반동적인 것이거나, 일탈적인 것으로 매도되었다. 사회 자체가 직접 인간의 행위를 도덕적으로도 심판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사회법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회경제적 질서나 이상적인 사회구성체를 마련하여 인간의 행복과 평화 및 정의를 구현하도록 할 수 있다고 믿어졌다. 이와함께 구체적인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있게 운영해 나가거나 선택할 수 있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근대화'나 사회주의적 사회의 건설이라고 하는 보편주의적 사회적 메커니즘 속에서 역사적, 문화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말았다.

'사회' 과학이 제시했던 현세적 인간구제의 이념은 오늘날 현실 정치적으로도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소련 및 동구권에서의 사회주의적 실험이 어쨌든 일단은 벽에 부딪치고 말았으며, 모든 사람의 모든 욕구와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겠다는 '위대한 사회'의 건설 계획도 사회과학으로부터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시대가 당면해 있는 총체적 위기에는, 그동안 과학적인 논리나 사실에 의해서보다는 학문 외적인 요인에 힘입어 근대의 일상생활을 해석하고 지배하는 세속 종교로 등극할 수 있었던 '사회' 과학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해명한다고 하는 작업이 지닐 수 있는 의미와 가능성 및 문제점을 두고 대결하였던 베버의 사회학이 새로운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소이가 마련되는 것이다.

#### 마르크시즘과 실증주의적 사회학 비판

위에서 언급했던 사회과학의 문제점을 염두에 둔다면 베버 사회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사회'에 관한 궁극적인 이론체계를 정립하여 이를 토대로 모든 시대와 문화의 사회적 현실을 설명해내고 또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 현실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그만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연의 세계와 달리 인간의 세계가 문제될 때에는, 외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회적 사실이나 규칙성 너머에 존재하는 역사적, 문화적인 의미와 의의가 보다 우리의 이론적, 실천적 관심을 끌게 되는데, 이는 법칙론적 사회지식으로는 해명되어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사실에 담겨진 의의와 인간 행위의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면, 질적으로 다양한 인간 존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과학이 요청된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구상 속에서 베버의 理解사회학은 탄생했다.

인간의 사회적 현실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왔을 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까지 부단히 변화해갈 것이며, 이러한 현실에 대해 실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하거나 이론적

인 개념적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우리의 관점도 문화적 차이나 시대와 더불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사회적 현실이 지닐 수 있는 의미를 해석해내고자 하는 우리의 눈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 주관적인 가치 관점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양한 것일 수밖에 없다면, 이와 아울러 사회적 현실을 비추는 주관적인 가치 관점의 빛깔에 따라 현실의 모습이 서로 다른 색채로 물들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미해석의 과학성을, 즉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에서 베버가 인간과 인간이 먹고 사는 주관적인 가치로 채워져 있는 현실을 해석하려 하는 과학에 대해 요구했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여 왔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실증적이거나 법적 과학적인 객관성을 뜻하지 않는다.

베버가 생각했던 의미에서의 '객관성'이란, 한편으로는 우리가 것처럼 다양하고 서로 다를 수 있는 주관적인 가치 관점에서나 자기의 입장에서 보이는 현실의 모습을 비추는 그대로 일관성 있게 그려내어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을 베버는 현실을 논리적인 의미에서 이상형적으로 스케치해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개념적 速記를 통해서 현실 가운데 이론적, 실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특정한 단면이 보다 선명하게 부각될 수 있다. 그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나와 다른 입장에서 있는 사람이 입장을 바꾸어 잠시나마 나의 색안경을 쓰고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그려보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그렸던 현실에 대한 그림은 비록 그것이 나의 주관적인 관점에 의해 채색되었다 할지라도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의미에서의 '객관성'은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서로 다른 삶과 사회질서의 가능성을 보다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각기의 가치 기반과 입장을 서로 바꾸어 생각해볼 수 있는, 즉 易之思之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학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까지의 '사회' 과학이 참칭했던 것처럼 사회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통일적인 사회 모델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올바른' 사회적 조건을 창출해내어 인간 존재를

후견하겠다는 생각을 단념하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신과 악마를 책임있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판단력을 인간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처럼 '사회'와 그 법칙적인 영향 및 작용 속에 함몰되어서는 아니 될 인간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학은 다양한 이념과 사회질서에 대해 민감하고도 폭넓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베버의 사회학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 인간의 현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이 이론적, 실천적으로 지닐 수 있는 의미를 깊이 성찰했던 그의 과학론적 구상에 대한 재조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의 실질적인 사회학적 연구 업적은 바로 '사회' 이론의 한계성과 문제점을 깨닫고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학 이외에 여러 인접 학문의 성과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재음미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 속에 전개된 그의 인간존재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방대한 양의 설명과 이해는 이제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대결했었던 서구적 합리성이 낳은 '근대' 문화의 문제점이 여전히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그의 출생지인 독일에서는 새로운 전집의 출간이 진행중이고, 서유럽뿐만 아니라 동유럽, 미국, 인도, 중국,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베버의 학문에 대한 연구가 새삼스럽게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인간의 다양한 가능성 강조한 '이해사회학'

베버 자신은 서구적 합리성 속에 몸담고 있었으며, 또한 근대 서구적 합리성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근대 서구와는 다른 문화와 시대가 발전시킨 다양한 종류와 방향의 비서구적 및 비근대적인 합리성을 바라보았다. 근대 서구 문화의 適者임을 자처한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으며, 여기에는 인간존재의 다양한 가능성을 근대 서구의 관점에서 理解하여 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일찍이 서구적 근대의 합리주의적인 문화에 내포된 새로운 문제점을 자각했던 베버는 비서구적이거나 비근대적인 문화를 근대 서구적 문화와의 대비 속에서 점검하여 대안적인 전망을 탐색해보고, 나아가서

는 근대 서구적 합리성의 가능성 및 타당성을 반성하고 저울질해보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탈근대적인 상대주의에로의 도피나 관용을 뜻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베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理解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용납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근대적인 서구문화의 유산과 토대 위에서 비서구적 및 비근대적인 문화를 이론적, 실천적으로 극복하여 서구문화의 장래를 보다 확고한 기반 위에 올려놓고 싶었던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의 문화적 합리성에 대한 사려깊은 근심과 애정, 그리고 자부심 속에서 이루어진 베버의 사회학을 생각하면, 우리는 물론 우리 나름대로 물려받고 축적해온 독자적인 역사적, 문화적 합리성과 이성의 토대에서 서구의 근대 문화를 비롯하여 인류가 노정해온 삶의 가능성들을 반추하고 극복하려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우리의 몸에 걸맞는 '근대'의 옷을 재단하여 입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베버의 사회학으로부터 그러한 작업의 방법과 의의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10개월20호분·값18000원  
전화문의: 732-1431~3